



# 미국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노동자 교육

켄트 왕 Kent Wong

미국노동교육협회(UALE)회장 - 캘리포니아대학(UCLA) 노동센터소장  
kentwong@ucla.edu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AFL-CIO조합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통관금칙록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UALE

## 미국의 새로운 노동운동

1999년 11월 있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는 미국노동운동의 분기점이었다. 노동자와 사회단체들은 시애틀 거리에서 연대의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시위의 위력은 경찰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시위대는 WTO의 활동을 저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시위는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그 결과 일어나는 노동자 착취, 환경파괴, 인권남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WTO 반대 시위에 미국노총인 AFL-CIO가 참가한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주요 변화를 반영한다. AFL-CIO는 국제적으로 냉전의 굳건한 옹호자로 알려졌다. 지난 시기 AFL-CIO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제3세계 해방운동을 반대했다. AFL-CIO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과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국제노동조직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익노동운동과 세 휴했다. 하지만, 1995년 AFL-CIO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AFL-CIO 출범이래 최초로 위원장 경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제를 대표했던 후보와 존 스위니 미국서비스노조(SEIU) 위원장이 맞섰다. 존 스위니는 힘 있는 몇몇 노조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고, 미국 노동자를 위해 “새로운 목소리”를 약속하는 강령을 내세웠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AFL-CIO 안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 새 지도부는 국내외로 미국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활발한 조치를 취했다. 더 많은 자원을 조직사업에 투자했으며,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의 단절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했으며, 더 많은 여성·유색인종·이민노동자를 조직함으로써 노조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많은 진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노동운동같은 거대하고 관료적인 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다. 물론 AFL-CIO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하지만 AFL-CIO가 개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불과함은 얹연한 사실이다. AFL-CIO는 노동운동이 가진 자원의 작은 부분만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돈과 권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개별 노동조합의 전국·지역·현장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노동운동 내부에 진보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투쟁은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노조들이 현상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는 여전히 지배적인 경향이며, 다수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자기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노조들만이 비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기존의 권력관계를 바꾸고 노동운동을 변화시키

는데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조직화 모델”(organizing model)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직화 모델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성과를 얻고 있다. 1999년은 미국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노동조합은 25년 간에 걸친 노조조직률 저하를 반전시키면서 노조원수를 26만 5천명 늘리는데 성공했다. 작년에 60만 명이 새로 노조에 가입했음을 감안한다면, 26만 5천명에 달하는 조합원 순증가(net gain)는 조직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반증한다. 현재 AFL-CIO의 조합원수는 1천 3백만 명이다.

### 새로운 노동교육 단체의 출범

미국노동운동의 변화는 노동교육 진영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노동교육가들의 새로운 전국 조직인 미국노동교육협회(United Association for Labor Education)가 지난 4월 문을 연 것이다. 미국노동교육협회(UALE)는 전국 조직이었던 대학노동교육협회(University and College Labor Education Association)와 노동자교육노조189지역본부(Workers Education Local #189)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대학노동교육협회는 역사가 40년이나 되었고, 주로 대학에 소속된 노동교육가들을 비롯해 50개 대학의 노동센터나 노동연구프로그램을 위해 일하는 직원 50명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교육노조189지역본부는 노동교육가들로 구성된 노조로 75년 이상 활동해 왔다.

미국노동교육협회(UALE)는 미국 노동교육 분야에서 단 하나뿐인 단체다. 미국노동교육협회는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잡지도 출판한다. 또한 정기적인 우편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노동교육협회는 미국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이익을 중진하고, 노동운동이 민주 사회에서 자리한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미국 노동교육협회는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폭넓은 사회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정직한 대화, 논쟁, 비판을 추구한다. 또한 국경을 뛰어넘는 노동교육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노동교육협회는 대학의 교육가들과 노조의 교육가들을 함께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대학에 자리 잡은 노동센터가 50개쯤 있다. 노동센터들은 노조가 공립대학이 노조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봉사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세워졌다. 노동센터들은 전국에 걸쳐 일상적인 노동교육의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조직하기, 기획하기, 노조 만들기, 노동법, 정치경제학, 다양성(divers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센터들은 노조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와 인턴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조 캠페인에 대학생들을 배치하



존 스위니 위원장을 비롯한 AFL-CIO 지도부가 반노조 관행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미국노동교육협회는 1주일 숙박과정인 '여성을 위한 여름학교' (Summer Institute for Union Women)를 4개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조의 교육 활동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AFL-CIO 교육국은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는 '경제학 상식' 과정을 전국적인 규모로 시작했다. 이것은 조합원들에게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항해서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또 AFL-CIO는 워싱턴에 자리잡은 숙박교육 센터인 조지 미니 센터(George Meany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지 미니 센터는 전국노동자대학을 출범시켰다. 전국노동자대학은 전국 어디서나 조합원들이 대학의 노동관련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지 미니 센터는 국제연대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노동교육가들과 노동지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노동운동에게 짜릿한 순간이다. 미국노동교육협회는 노동교육의 영역을 노조와 노동자연대의 통합된 부문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노동운동과의 연대도 강화하길 원한다. 한국노동운동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